

순천시, 청결·안전 ‘자연친화형 도시’ 조성 총력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소통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아동 활동공간 관리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범위 확장
식수원 주암호 불법 단속 수질 보전
市 “사전 예방 중심 정주 여건 확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친화형 도시 조성에 나선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생태를 넘어 경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경제도시 순천’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구축을 본격화한다.

주요 환경 정책 결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오염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밀착 행정을 펼친다.

그동안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이나 폐기물·축

사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주민 갈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갈등 우려 시설의 경우 인허가 전부터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지역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검토한다.

시민 공감 행정의 일환으로 입지 여건 사전 안내와 함께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아울러 환경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를 공유하는 직무 워크숍을 정례화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비산먼지와 소음 유발 공사장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감시망도 현장에서 즉각 가동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중금속·수질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해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

라돈 측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와 이륜자동차



순천시가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 체감형 자연친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순훈호 순천시장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순천시 제공>

배기소음 단속,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등을 병행해 생활 주변 위험 요인까지 철저히 견어낼 방침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기존 취약계층에 머물렀던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혜택 범위를 일반계층 주택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철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붕 개량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남광주 지역 핵심 식수원인 주암호와 상사호 일대 맑은 물 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 등을 투입해 감시초소와 순찰선을 상시 운영하며 불법 어로행위와 무단 형질변경을 단속하고 수중폭기장치를 가동, 녹조류 번성을 차단하고 있다.

강력한 특별 단속과 더불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 제약을 받는 수계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시는 소득 증대·복지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자발적인 수질 보전 협조를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훈호 순천시장은 “환경 문제는 시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후 단속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생활 불편에는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고 환경오염 요인은 선제 차단해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정부, COP33 대한민국 유치 선언해야”

여수서 환경단체 등 200여명 결의대회
개최 지역 ‘남해안남중권 先지정’ 촉구
“생태·산업기반…상징성·실천 의미 충분”

남해안남중권 지역민들이 정부에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대한민국 유치 선언을 촉구했다.

(사)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COP33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남해안 남중권 지역민 200여명은 지난 7일 오후 여수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

회를 열고 COP33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개최 지역 선(先)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는 단순히 국제회의의 하나를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남해안남중권은 바다와 갯벌, 습지, 산림 등 풍부한 생태자원과 함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생태 보전과 산업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COP 개최의 상징성과 실천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COP33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결의대회에는 여수선언실천위원회, COP33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실천연대, 탄소사냥꾼연합, YMCA·YWCA, 환경운동연합, 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 60+기후행동, 지역발전협의회 등 남해안남중권에서 활동하는 50여개 기후위기비상행동 및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내년 221억원 규모 신규 시책 총 126건 발굴

김한중 군수 주재 보고회서 논의
“미래로 도약 더큰 성장장성 구현”

장성군은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2027년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갖고 126건, 221억원 규모의 시책을 점검했다. 김한중 군수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부군수,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 24명이 참석했다.

<사진>

내년 시책에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군정 주요 사업과 국비, 시비 공모사업이 포함됐다. 행정·관광·체육, 복지·농업, 건설·지역개발 등 3개 그룹 24개 부서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시책 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주요 시책은 미래 성장성 기반 강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단지 조성,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통합바이오가소화시설 설치사업 등이다.

장성군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을 반영해 ‘미래 성장성 기반 강화’에 힘을 쏟는다.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진 계획 수립과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진원·남면 일원에는 300만㎡ 규모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해 국가산단의 확장성·효율성 증대를 도모한다.

서삼면 장산리에는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분산 보관돼 있던 제설, 수방자

재, 구호물품, 민방위, 원전 관련 물품을 일괄 관리한다.

장성·광주 구간 광역대중교통 환승비를 없애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2027년은 군정 비전인 ‘미래로 도약하는 더큰 성장장성’을 본격 구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발굴된 사업들이 장성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보성군 ‘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활성화 간담회

별교꼬막축제 대비 친절·위생 교육

보성군은 최근 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음식점 8개소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친절·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22회 별교꼬막축제를 앞두고 꼬막거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문객을 맞이할 음식점의 서비스와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서는 축제와 연계한 꼬막거리 홍보 방안과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홍보 부스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영업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식품위생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계별 위생 관리 요령, 친절한 고객 응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정인숙 문화관광과장은 “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영업주와 지속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명품 음식문화거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명품화 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 환경 정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 ▲영업주 간담회, 친절·위생 교육 ▲음식 거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임병연 기자



“군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

김현미 제28대 장흥부군수 취임

지역 최초 ‘여성 부단체장’ 탄생

김현미 제28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부군수가 취임했다. 장흥군 여성 부단체장은 김 부군수가 처음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장흥의 강점과 가능성을 잘 살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최초의 여성 부군수로서 새로운 시각과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 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 북평면 출신인 김 부군수는 1982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농업·해양·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아온 행정 전문가다.

장흥군은 김 부군수가 농업·해양·관광·조직 관리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 9기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흥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농생 명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등 주요 현안에도 풍부한 행정 경험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노형록 기자

광양시, 11일까지 관광 할인투어 추가 모집

16~18일 당일·1박2일 체류형 상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8일 “제1회 광양 관광의 날” 특별 할인투어 일부 코스가 조기 마감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투어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양 주요 관광지인 제22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장 일원에서 당일 및 1박2일 코스로 운영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다.

당일 투어는 매일 40명을 모집해 망덕포구, 배알도수변공원, 전남미술관, 파노라마 워크 등 핵심 명소를 둘러보고 축제장을 찾는다. 참

가비는 1만원이다.

1박2일 투어는 2차례에 걸쳐 회당 30명을 모집하며 섬진강 요트 체험과 백운산자연휴양림 코스가 추가된다. 참가비는 2만4천원이다.

모든 참가비용에는 왕복 차량비와 입장료, 체험료 등이 포함됐다. 참가 신청은 광양시관광협회의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 입금 시 최종 확정된다.

이명만 광양시관광협회의회장은 “일부 코스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특별 투어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며 “가을 관광과 축제를 과격하게 즐길 수 있는 연장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성학 기자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기업 입주 가시화

희망 기업 관계자 면담 의견 공유

곡성군은 8일 “최근 운곡특화농공단지(조감도) 현장에서 입주 희망 기업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공장 건립·입주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는 기업의 투자 계획과 입주 일정 등을 확인하는 한편, 202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조성 중인 운곡특화농공단의 원활한 공장 건립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 곡성군의 자체 투자보조금 지원방안, 은행권 대출 등 입주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입주 희망 기업들은 현장 확인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바탕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부지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기업 입주와 투자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곡성군은 조속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에 기반 시설 정비와 입주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했으며 입주 희망 기업과의 면담을 계기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는 부지 계약뿐만 아니라, 공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자금조달 등 여러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해 실제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